

경북도, ‘中 연휴·여름방학’ 노린다… 관광상품 집중 홍보

상하이서 ‘트립닷컴 그룹’과 맞손
벚꽃명소 등으로 경북 매력 알려
선전서 ‘K-관광로드쇼’ 참가도



경북도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상하이와 선전을 방문해 중국 주요 여행플랫폼 기업과 공동 마케팅 협약을 체결하고, '2026 K-관광로드쇼 in 선전'에 참가해 한국관광공사(KTO)와 함께 경북 관광 홍보 활동을 펼쳤다. /경북도

경북도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상하이와 선전을 방문해 중국 주요 여행플랫폼 기업과 공동 마케팅 협약을 체결하고, '2026 K-관광로드쇼 in 선전'에 참가해 한국관광공사(KTO)와 함께 경북 관광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중국 방문은 중국 관광시장 회복세와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에 맞춰 중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 마케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로 높아진 국제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 현지 관광시장 공략에 나서며 경북 관광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3월 11일 상하이에서 글로벌 온라인 여행플랫폼 기업인 '트립닷컴 그룹(Trip.com Group)'과 경북 관

광상품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5월 중국 노동절 연휴와 여름 방학 시즌을 겨냥해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선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기업 트립닷컴 그룹과 협력해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홍보 콘텐츠로는 ▲경북 봄철

여행과 벚꽃 명소 ▲경주·안동 등 전통 역사문화 관광지 ▲포항 등 현대적 도시 랜드마크 ▲경북 음식문화와 만들기 체험 ▲지역별 축제·이벤트 등이 소개된다. 또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미식, 역사, 드라마 촬영지 등 다양한 테마의 경북 여행 후기를 확산해 중국 현지 관광객에게 경북 관광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중국 잠재 여행객의 관심을 실제 경북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글로벌 온라인 판매망과 연계한 홍보와 관광상품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3월 12일 선전에서 열린 '2026 K-관광로드쇼'에 참가해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북 관광 홍보 설명회와 B2B 상담회를 진행했다. 선전은 중국 광둥성의 핵심 경제도시이자 2026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다.

설명회에서는 불국사·석굴암, 안동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비롯해 역사문화 관광지와 드라마 촬영지, 지역 미식과 축제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경북 관광의 매력을 소개했다. 또한 대구·김해 국제공항을 통한 접근성과 관광 인프라, 체류형 관광 콘텐츠 등 경북 관광의 경쟁력도 함께 홍보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

오는 28일 '달마고도 걷기 행사'

한반도 첫 봄의 시작, 땅끝 해남의 명품 걷기길 '달마고도' 걷기 행사가 28~29일 열린다.

송지면 달마산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땅끝해남 달마고도 힐링걷기'는 '걷는 순간이 곧 힐링'이라는 테마로 걷기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달마고도 천혜의 자연 속에서 걸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28일에는 세계 최초로 8000m급 산악 16좌를 완등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코스 중간중간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 명사의 경험담과 삶의 철학을 나누며 걷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교육청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

경북교육청은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과 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단순한 데이터 활용을 넘어 다양한 AI 기술을 교육 현안 해결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미래형 데이터·AI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BFC-KMI

'K-해양금융 혁신 포럼' 열려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을 오는 24일 KMI 본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해양 기업과 해양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K-해양금융 혁신 포럼' 출범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은 초청 강연 세션과 종합 토론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행사 영상은 녹화 후 공유될 예정이다.

/부산=이도석 기자

진주시,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조성

가산일반산업단지 하반기 개소 목표
KAI회전익 비행센터와 연계
전 주기 지원체계 갖출 전망



진주시 회전익비행센터.

경남 진주시는 이란성만 가산일반산업단지에 올해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를 조성중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AV 실증센터'는 정부의 상용화 정책에 발맞춰 미래 유망산업인 AA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조성중인 핵심 인프라로 인접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회전익 비행센터와 연계해 기체 및 부품의 시험·검증부터 비행시험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험 장소 이동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개발 기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기체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기업들의 AAV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면 실증센터는 기체 개발과 실증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KAI는 AAV 상용기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인 ㈜엔젤릭스도 대학 및 연관 기업들과 협력해 경남형 AAV 시제기를 개발하고 있는 등 실증센터 활용 수요도 일정 수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피끝마을”서 단종 역사 둘러보세요”

영화 '왕사남' 1000만 흥행에
영주시 역사·관광 코스로 급부상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왕과사'는 남자'가 흥행몰이에 성공하며 단종과 금성대군 이야기를 가득 품은 경북 영주시가 역사·관광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영주시에 따르면 영주에는 영화 '왕과사'는 남자'에 등장하는 금성대군과 단종 복위 관련 역사가 곳곳에 가득하다.

영주 안정면 동촌1리는 '피끝마을'로 불린다. 1457년 단종 복위 거사가 실패한 뒤 정족지변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순흥도호부(현재 영주) 백성들이 대량 학살당했다.

죽임을 당한 백성들의 피가 죽계천을 따라 10리쯤 흐르다 멈춘 곳이 동촌1리였다. '피가 끝난 곳'이라고 '피끝'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전해진다.

피끝마을을 지나 걷다보면 금성대군 혈식을 모셨던 죽동 성황당이 있다. 이어 순흥의 흥망성쇠를 곳곳이 지켜온 봉서루(鳳栖樓), 단종복위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를 입은 순흥 안씨들의 성소(聖所)인 대산단소(臺山壇所)가 나타난다.

읍내리 고려시대 천년우물 사헌정(四賢井), 한국 최초 사액서원 소수서원을 비롯해 금성대군 신단도 둘러볼 수 있다.

시는 피끝마을을 시작으로 금성대군 신단을 잇는 약 7km 규모 둘레길을 '단종애사대군길' 코스로 구성해 관광객들에게 추천한다. 이 길은 단순히 유적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금성대군과 순흥 지역의 비극과 연대, 희생과 기억의 복원이라는 서사를 한 걸음씩 따라가며 체험할 수 있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국립창원대, 경남도립거창대·남해대 통합

4개 캠퍼스 체제 갖춰

국립창원대학교가 경남도립거창대학·남해대학을 흡수 통합해 창원·거창·남해·사천을 아우르는 4개 캠퍼스 체제를 갖췄다.

국립창원대는 13일 대학본부 인승홀에서 '통합대학 출범식'을 열고 새 출발을 알렸다. 지난해 5월 교육부 승인 이후 공식 통합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교육부 장관과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경남도의회 의장, 경남교육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교육부·국립창원대·경상남도 3자 간 '통합대학 이행

협약' 체결이었다. 국가 고등교육 정책과 경남도의 발전 전략을 대학의 'DNA+' 혁신 비전과 결합해 지역 성장을 이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출범식에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 등은 창원 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 지역 대학 최초로 국립창원대 내에 설립되는 LG전자 HVAC 연구센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수요 기반 인재 양성 및 공동연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해당 연구센터를 2027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경남=이도석 기자 metrobusan@

포항시, 지역 中企 현장중심 기술 지원

'지역 中企 애로기술 지원사업'
연구개발 등에 최대 3000만원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은 지역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포항시와 포항상의, RIST는 1998년 9월 중소기업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민·산·관 기술협력위원회를 공동 운영하며 현재까지 988개 기업 2560건의 애로기술을 발굴해 지원해 왔다.

이번 사업은 생산 공정 개선과 품질 향상, 신제품 개발, 공정 자동화 등 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매칭해 현장 중심의 기

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분야는 연구개발과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개발과 기술자문은 건당 총사업비 3000만원 내외로 지원되며, 시험분석은 기업당 분석 이용료 합산액 300만원 이하를 무상 지원하고 300만~500만원 구간은 50%를 지원한다. 기술지도는 기업당 이용료 합산액 100만원 이하를 무상 지원하며 100만~300만원 구간은 50%를 지원한다.

분야별 접수 기한은 서로 다르다. 연구개발 분야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시험분석과 기술자문 분야는 기업 편의를 고려해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